논어 14편 헌문 34장 · 원문·풀이

微生畝謂孔子曰：「丘，何爲是栖栖者與？無乃爲佞乎？」孔子曰：「非敢爲佞也，疾固也。」

독음 · 미생묘위공자왈 구 하위시서서자여 무내위녕호 공자왈 비감위녕야 질고야

쉬운 풀이(요약) · 왜 분주히 세상을 다니느냐는 물음에 공자는 말재주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微 작을 미 미 / 生 날 생 생 / 畝 이랑 묘 / 謂 고할 위 위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丘 언덕 구 구

何 어찌 하 하 / 爲 할 위 / 是 이 시 시 / 栖 깃들일 서 서

者 놈 자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無 없을 무 무 / 乃 이에 내 내

佞 재주 녕 녕 / 乎 어조사 호 / 非 아닐 비 비 / 敢 감히 감 감

也 어조사 야 / 疾 병 질 질 / 固 굳을 고 고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